

노대통령 탈당 추진 배경

與 통합신당 논의에 활로 터주기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열린우리당을 탈당하는 방향으로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진 것은 여당이 처한 현실과 일기발 국정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1일 “노대통령이 당적 정리 문제에 대해 최종 숙고중이며,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탈당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내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노 대통령의 의중을 밝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이번주 중 당적 정리에 대한 최종 입장은 정리해 밝히더라도, 공식으로 탈당계를 제출하는 등 형식적 탈당 절차는 시간을 갖고 진

임기말 국정 안정적 마무리

행할 수도 있으며, 늦더라도 이번 임시국회 회기 (~3월 6일)는 넘기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이 탈당 쪽으로 기울을 것은 참여정부 4주년인 오는 25일로 퇴임을 1년 앞두게 되는 시점에서, 이를 전후해 여당 당적을 정리하는 것이 통합신당으로 활로를 모색하려는 여당과 초당적 협조를 바탕으로 일기발 미래과제 해결에 진력하려는 대통령 자신에게 모두 도움이 될 것이라 결론에 이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남은 1년간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9개월이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공정히 관리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이 탈당 문제에 대해 개헌안 발의, 여당 내부 문제 등을 전제로 했던 ‘조건부 탈당’에서 ‘조기 탈당’ 쪽으로 급선회한 것에 이런 의지가 반영돼 있다는 게 여권 관계자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21일 저녁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출산·건강 기정운동’ 후원의 밤에 참석한 이명박 전 서울시장, 정동영 열린우리당 전 의장,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행사 축하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이날 행사에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참석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축하메시지를 전달했다.

/연합뉴스

노 대통령은 특히 여당의 진로문제를 놓고 적잖이 고민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당적 보유가 여전히 통합신당 논의의 변수가 되고 있다는 현실적 판단에서다.

개헌문제도 중요 요인 작용

열린우리당이 본당에 벼금가는 대규모 탈당의 고통 속에서 새롭게 출발한 현 시점에서 여전히 자신이 여당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것이 고민의 핵심이었고, 결국 당의 활로를 터주자는 차원에서 탈당을 결심하게 됐다는 것이다.

정치쟁점화된 개헌문제도 대통령의 탈당 결심을 굳하게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당, 특히 한나라당이 개헌논의 자체를 거부하면서 탈당의 두 가지 조건 중 하나가 무의미해졌고,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이 개헌을 명분으로 탈당하면 개헌제안이 정략적 의도라는 야당의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럼 바에는 개헌 발의에 앞서 탈당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 필요한 개혁은 제때 하자”는 개헌제안의 진정성을 높이고 한나라당의 반대 명분을 허석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유재건 “유시민 출당해야”

“97년엔 DJ집권 가능성 0%라 했다”

‘한나라당의 집권가능성이 99%’라고 밝힌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열린우리당과 탈당과 의원들이 21일 심포зи엄을 열렸다.

먼저 우리당 내에서는 2·14 전당대회를 거쳐 내부결속을 다져가려는 판국에 유 장관이 사실상 해당 행위나 다른 없는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비판론이 쏟아져 나왔다.

우리당 원혜영 최고위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 모임에서 유 장관의 발언을 겨냥, “새로운 출발에 도움이 안되는, 찬물을 끌어는 언행이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더구나 패배

주의적 사고를 여과없이 노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언행”이라고 비판했다.

유재건 열린정책연구원장도 확대간부회의에서 유 장관의 발언을 해당 행위라고 지적하고 유 장관의 출당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지병문 윤리위원회는 “유 장관의 발언에 대해 당내에서 지적들이 있는 만큼 윤리위 회부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절차를 따져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 이 같은 강경기류는 단순히 문제발언의 차원을 넘어 유 장관

을 지지하는 강경 개혁파 그룹에 대한 당내 주류세력의 정서적 반감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다.

열린우리당 집단탈당그룹인 통합신당모임은 유 장관이 지난 97년 ‘개인의 법칙’이란 저서를 통해 당시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집권 가능성이 0%라고 공언했던 ‘전례’를 들춰내며 비판을 가했다.

전병현 의원은 이날 오전 전원회의

에서 “DJ의 집권 가능성이 0%라고 호언장담했던 유 장관의 예상은 정확하게 100% 빗나갔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어 “유 장관은 스스로 열린우리당의 ‘역린’을 걷드리고, 그래서 스스로 열린우리당의 소멸을 얘기하는 장본인이 되고 있는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사모 선거법 위반

선관위, 경고 조치할 듯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나라당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의 팬클럽 ‘박사모’가 최근 소속회원들에게 ‘이명박 겸증 총동원령’을 내린 것을 명백한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경고 조치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21일 “박사모가 회원들에게 통지한 총동원령 내용 중에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이는 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금지에 관한 규정)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금명간 박사모에 경고조치를 공식 통보하고 재발방지를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전당대회 장상對 박상천

원내-단일체제 对 원외-집단체제 경쟁

민주당이 오는 4월 3일 전당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단일 지도체제 유지와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도입 문제が 당내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단일 지도체제는 통합과 협력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지세가 확산되고 있는 반면 집단지도체제는 전직 의원 등 원외 인사를 중심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면서 원내와 원외 대결 양상을 띠고 있다.

단일 지도체제는 당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운영되는 방식으로 한화갑 전 대표와 현 장상 대표 체제를 의미한다.

일단 통합파 의원들은 집단지도체제가 도입될 경우 내부 이견 등으로 인해 통합신당 창당 등 정계개편 과정에서 신축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또한, 단일 지도체제는 대표가 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심과 관계없이 일방적인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특히, 최고위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원외 인사들은 당내 지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현역 의원들이 경쟁을 피하기 위해 단일지도체제를 선호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지도체제가 도입되더라도 원내와 원외의 대결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대표 자리는 장상 현 대표와 박상천 전 의원이 대체로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경우 통합파 의원들과 당내 최대 주인 한화갑 전 대표는 장상 현 대표를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 원외 인사들은 박 전 대표에 지지를 보낼 가능성이 높다. 정계개편 과정 등에서 원외 인사들의 입장을 반영하고 소위 ‘민주당 중심의 정계개편’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일본 오키나와 외유를 미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가 21일 인천공항에 도착, 신국환 국민중심당 공동대표 등과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광주·전남 위원장 누가 나오나

광주 김종배·최경주 전남 국창근 출마 예상

민주당이 임기가 끝나지 않은 광주시당위원장과 전남도당위원장은 우선 4월 재·보선 공천 등 선거를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21일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에 따르면 중앙당은 최근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초 2년인 시·도당위원장의 임기는 4월 3일까지로 확장됐다.

21일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에 따르면 중앙당은 최근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초 2년인 시·도당위원장의 임기는 4월 3일까지로 확장됐다.

특히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대선전국에서 호남민심을 아우르는 가장 막강한 시·도당위원장이라는 측면에서 상당수의 정치인이 육심을 낼 수 있는 자리다. 더욱이 새로 선출되는 시·도당위원장 개정으로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기도 하다.

현재 광주시당위원장의 경우 김종배 동구지역위원장, 최경주 북을 지역위원장 등의 출마가 예상된다.

유종필 현 위원장은 아직 거취를 명확히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전남도당위원장은 최인기 현 위원장이 거취를 확실히 표명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창근 전 의원과 현역 의원 1~2명의 출마설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이번 시·도당위원장 선출이 소급입법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 시장·도당위원장의 임기는 11월이다. 그런데도 중앙당이 당 해신 차원에서 시·도당위원장의 임기 2년 규정(당규)을 개정, 바로 적용시킨 것이다.

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정계개편 과정에서 당 분위기를 일신하는 차원에서 당규를 개정해 시·도당위원장 선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광주시당위원장의 경우 김종배 동구지역위원장, 최경주 북을 지역위원장 등의 출마가 예상된다.

유종필 현 위원장은 아직 거취를 명확히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전국수석합격자배출 13,14회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학원

◆“서울”새롭행정고시학원 광주 상록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전문학원(전국 25개 학원 체인)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TV방송출연 교수진 / 저자직강★
3月2日 첫진도 (주간반,야간반) ·재자자 무료 수강생 야간반 60명 선착순 모집

합격률 1위! 새롭행정고시학원 ☎ 361-8111 서구청앞(농성동)

공인중개사

EBS교육방송
제10회 주택관리사 시험대비
제8회 주택관리사 시험 광주지역 합격자 196명 중 본원출신 143명 합격!

3월 2일 첫진도 개강

주택관리사 1위

본 원 ☎ 227-8003 [구]도청 앞 전일빌딩 뒤
첨단점 ☎ 971-0002 빌마트 첨단점 옆 광주은행 4F

광주고시학원

회소식 수강료 학과별 한과 대회

기장주부 실업자 여성임자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수강료 환급 출석률 80% 이상시 수업료의 50%를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기입 무관※

전국 최강의 강사진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유명 출판사 저자 직강 *

탁월한 학습 시스템 ○ 출결관리 ○ 학습 성취도에 따른 개별 분석지도
○ 자습실, 사물함 무료 사용

A+ 현대고시학원 236-2467~8 (동부경찰서 옆)

국가직/ 지방직 시험대비

www.mdgosi.co.kr

9급공무원 전직렬 문제풀이 2007 공무원 대거채용 교정직 특채

출제위원급 톱강사진 전격출강! 2007년 700명 모집예상! (정부업무 교육원, 청년 22종 등)
개강: 3월 2일

무등고시학원 동부경찰서 222-4560

공시생들에게 가장 주목받는 한빛 - www.hanbitgosi.co.kr

2007 국가직/ 지방직대비 공무원

개설학과: 행정직, 교육행정직, 세무직, 법무직, 경찰직, 사회복지직, 군무원, 출입국관리직, 교정직, 농업직, 전산직, 기술직
=한빛 슈퍼파워= 올 문제풀이 하면 다 걸린다!

올교정직특채 800여명 2007년 경쟁률 1:100
올 문제풀이

한빛공무원학원 북구청 건너편 전남대 후로암 쪽 234-0234
개강: 3월 2일 (출/학수반 매월 첫진도 개강)